

2015 년 2 월 28 일(주일) 야고보서(14) "경건의 피상을 넘어야 사랑이 보입니다"(약 4:1~5)

<도입>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인정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것 중의 하나가 자기 자신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야고보 교회의 교우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고, 지혜도 가진 자들이라 믿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들은 기도에도 열심이라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믿는 바와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거울로 비추도록 하여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영적(진실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는지 보아야겠습니다.

[1] 야고보 공동체 교우들의 영적 진단

(1) 교회 안에서의 자기 자랑과 싸움은 내면의 정욕 때문이다. 정욕이란 "헤도네",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 세상과 벗 되기를 원하기 때문.

사람은 자신의 쾌락(세속적 것들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만족) 추구를 떠벌리고 알리지는 않습니다. 은밀히 즐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겉과 속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갈등은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타인과의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합니다.

정욕(쾌락 추구)은 악심으로 번지기도 하고, 시기에 이르게도 합니다. 동시에 정욕의 **나쁜 영향은 자신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채워져서 만족을 얻을 때가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만나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 기도를 정욕으로 드리는 사람들. 진실하고 정직한 구함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 때문에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때문.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써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구하지 못할까요? 자기의 잘못된 영적 지도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또 정욕을 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 하지만 당신의 기도는 무용하다고 말하면 절망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분명히 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른 기도는 언제나 자신을 채움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의 법을 가장 깊이 인정할 때 드러집니다.

[2] 자기 도덕성에 가리워져 볼 수 없는 자신

교우들은 한 마디로 '도덕적 반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흠 없고 반듯하게 보이고 도덕적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의 법에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나 최고의 사랑의 도까지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로부터 나타나는 대표적 양상은 자신에게서 죄와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실제 결함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자기 도덕성에 가리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결함과 잘못을 보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영적 길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랑을 동경하지도 않으며,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에 관심 없는 내적 상태가 치명적 잘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도덕성이 인정받을 때는 자기 의의 정신이 생기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은 도덕적인 비신자들과 매우 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성에 머무는 피상성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 사랑에 더욱 붙들리기 원하고, 그 사랑을 배워보려고 애쓰는 형제와 자매의 진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참 종교적이네..." 이런 말을 할 뿐입니다.

[3] 교회의 기쁨

교회에서의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1)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무한히 더욱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데 있습니다. **5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시는 것이 시기하는 것처럼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 안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참 사랑은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배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었죠?

-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창조의 조화를 아름답게 펼쳐 내시는 사랑
- 죄와 악이 범람하고 넘쳐흘러도 구속의 화목을 이루어 내시는 사랑

성경은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태권도 노랑 띠인 사람에게서는 노랑 띠 수준 이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창조적이고 화목을 이루는 사랑을 배우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배우고 행하는데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 그리고 그것에 동반되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겸손합니다. 남들의 잘못을 알지만,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아직도 사랑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 눈의 티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더 깊은 사랑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의 대들보입니다. 이 대들보를 치워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교회의 기쁨이 회복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할 정욕의 기도를 극복하고 경건의 피상을 넘어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도덕과 나의 경건을 넘어서실 때 밝게 비추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가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에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의 내면의 실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비추어질 때 나는 어떤 모습의 소유자로 나타났습니까?
2. 야고보 교우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볼 수 없었습니까? 나는 내면을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진심으로 최고의 법으로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근거한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